

2012학년도 수시1차 일반전형

논술고사 문제지 (인문계열)

모집단위	학부/학과	수험번호	성명
------	-------	------	----

◆ 유의사항 ◆

1. 시험 시간은 120분임
2. 답안은 답안지의 해당 문항 번호에 검은색 펜이나 연필로 작성할 것
3. 학교명, 성명 등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답안에는 드러내지 말 것
4. 연습은 문제지 여백을 이용할 것
5. 답안지 분량은 문항별 답안 길이에 맞추어져 있음

감독확인



이화여자대학교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오랜 옛날부터 시간은 여러 가지로 비유되었다. 그러나 그중에서 흐르는 물만큼 시간의 이미지로 오랫동안 사용된 것은 없을 것이다.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인간은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삼라만상이 영원히 계속될 수 없고 찰나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강물은 영원히 우리 주위를 흘러가기 때문이다. 그의 제자인 크리탈루스는 더 나아가 한 번도 같은 강물에 발을 담글 수 없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한 발을 담근 다음 다른 발을 담글 때에는 이미 자신도 강물도 다른 것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이다.

시간의 화살은 항상 같은 방향을 가진다. 왜냐하면 과거와 미래란 시간의 화살에 의해 정의되기 때문이다. 화살의 양쪽 끝은 서로 다르다. 우리는 항상 시간의 화살이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있고 그 화살은 어디든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과거를 기억한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기억하지는 못한다. 나는 앞 문장의 마침표를 찍은 다음 글쓰기를 잠시 멈추었다. 노란색 종이 위에는 방금 내가 썼던 문장이 쓰여 있다. 그것은 과거의 검은 색 흔적인 것이다. 종이의 나머지 여백은 비어 있다. 지금 나는 그 새로운 문장을 타이핑했다. 그러나 방금 그 문장의 ‘지금’이라는 말 또한 이미 과거가 되어버렸다. 또 방금 쓴 문장의 ‘지금’이라는 말 역시 과거 속으로 흘러갔다. 그러나 한번 지나가버린 과거는 돌이킬 수 없다. 그것은 한번 존재했다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이다. 우리는 과거를 오직 현재가 남긴 흔적이나 기억 속에서만 알 수 있다. 이런 흔적들을 통해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과거를 재구축할 수 있을 뿐이다.

[나] 1879년에 토머스 에디슨은 상업적으로 실용화된 최초의 백열등을 발명했다. 3년 후 그가 뉴욕의 펠스트리트에서 전기공급 서비스를 시작함으로써 전깃불은 널리 보급되기 시작했다. 저명한 건축사가 레이너 배넘은 이를 가리켜 “인류가 불을 이용하게 된 이래 최대의 환경 혁명”이라 불렀다.

용도가 다양하고 값싸며 고장이 잘 나지도 않는 전기조명으로 인해 생활에 수많은 변화들이 일어났다. 예컨대 낮과 밤의 구별이 불분명해졌다. 물론 촛불과 가스등도 어둠을 밝힐 수는 있었지만 백열전구가 뽑아내는 엄청난 위력은 흉내도 낼 수 없었으며, 나아가 언제까지나 반복될 것 같던 낮과 밤의 교대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1898년에 나온 한 소설을 보면 그러한 변화가 잘 나타나 있다. 소설 속에서 브로드웨이는 황혼 무렵인데도 ‘눈부신 전기’의 물결로 인해 밝게 빛남으로써 밤이 낮으로 영원토록 변하는 효과가 생겨났다.

한편 영화는 시간의 단일성과 불가역성을 가지고 놀면서 다양한 시간적 현상들을 그려냈다. 프랑스 영화의 개척자 조르주 멜리에스는 어떤 우연으로 인해 활동사진에서 일련의 기법을 구상할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1896년 어느 날, 그는 오페라 광장에서 거리 장면을 찍고 있었는데 갑자기 필름이 얹히고 말았다. 카메라를 손보고 나서 몇 분 후 촬영을 계속했는데, 나중에 그 필름을 영사했더니 합승버스가 갑자기 영구차로 변하는 환상적인 영상이 만들어졌다. 여기서 힌트를 얻은 그는 카메라를 멈추고 장면을 변화시킴으로써 얻어지는 다른 효과들도 몇 가지 더 발견하게 되었다. 이 기법이 사용된 1896년 작품 <사라진 부인 The Vanishing Lady>을 보면 해골이 순식간에 살아 있는 여인이 되는데, 이는 시간의 비약과 역류를 암시한다.

[다] 사람들이 오늘이 있음을 알지 못하면서부터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를 그르치게 되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단지 오늘에 달려 있다. 이미 지나간 것은 그것을 다시 돌이킬 길이 없다. 아직 오지 않은 것은 비록 3만 6천일이 차례로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 날에는 각각 그 날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으니 다음 날로 넘길 만한 여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내가 유독 이해할 수 없는 바는 이런 것이다. 저 ‘한가함[閒]’이란 경전에도 실리지 않았고 성인들도 말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한가함을 평계로 나날들을 그냥 보내는 사람들이 많고, 이로 인해 이 우주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그 마땅한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더구나 저 하늘은 스스로를 한가롭게 하지 않으며 쉼 없이 운행하고 있거늘 인간이 어찌 한가로움을 얻을 겨를이 있단 말인가?

하지만 오늘 해야 할 일들도 사람마다 한결같지가 않아서 착한 사람은 착한 일을 하고 착하지 않은 사람은 착하지 않은 일을 한다. 하루는, 길하든 흥하든 고단하든 활기차든 간에 다만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에게 매여 있을 뿐이다. 저 하루란 쌍여 가면 열흘이 되고, 한 달이 되고, 계절이 되고, 한 해가 된다. 사람도 또한 날마다 수양하면서 조그만 일이라도 시작하여 차근차근 나아가다 보면 신묘한 성인(聖人)의 경지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그대는 수양을 하고자 하는 젊은이이다. 그 공부는 오로지 오늘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 있으니 내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아야 한다. 아! 수양하지 않고 넘어가는 그 날은 태어나지 않은 날이나 다름이 없다. 그 날은 곧 쓸데없이 헛된 날[空日]이 되고 말 것이다. 그대는 모름지기 눈앞에 있는 분명한 일들부터 힘써서, 헛된 날을 만들지 말고 해야 할 일을 하는 오늘[當日]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라] 한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묘비명인 “빠르게 살고 일찍 죽어 아름다운 시체를 남긴다”라는 글귀는 젊은 쾌락주의자의 좌우명으로도 그만인 문구다. 충동적이고 즉흥적이며 공격적인 성향이 조금 있기도 했지만 그게 잘못될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기꺼이 위험을 무릅쓰고,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고, 과거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행동하기 전에 손익계산 따위는 해보지 않고, 만족을 뒤로 미룰 줄 모른다고 해서 말이다. 하지만 그런 성향을 지녔다면 잘못될 일이 무수히 많다.

쾌락주의자들은 정기적인 건강 검진, 치과 검진, 유방암 검사 등을 받지 않아 건강을 위태롭게 한다. 몸에는 좋아도 맛이 없으면 먹지 않을 확률이 다른 성향의 사람들보다 높다. 에너지가 넘쳐 지치는 줄 모르고 활동하지만, 종종 수면부족 상태에 이르러 건강을 해치기도 한다. 다른 시간관을 가진 사람들보다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실 확률, 만취할 확률이 높으며 자동차나 자전거,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 위험한 행동도 더 많이 한다. 그뿐이 아니다. 현재지향성과 자동차 경주, 음주 운전, 운전 중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 행동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텐퍼드대학과 코넬대학의 200명이 넘는 학생을 조사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고등학생들을 조사했을 때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현재지향성은 위험스러운 운전이나 음주와도 깊은 연관이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동부와 서부의 명성 있는 학교들에서도 발견되었으며, 남학생뿐 아니라 여학생도 마찬가지였다. 미래지향성은 이러한 행동들과 관계가 없었다.

[마] 시계의 역할이 지닌 중요성은 역사적으로 유래가 깊다. 예를 들어 선원들은 오랫동안 북극성과 태양을 이용해서 위도를 알아낼 수 있었던 반면, 경도를 찾는 데 있어서는 장애가 매우 많았다. 이러한 어려움은 낮과 밤이라는 ‘태초의 시계’를 만든 지구의 움직임 때문이었으나, ‘인간의 시계’가 이 곤란함을 해결해주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정확한 경도는 유럽인들이 대양을 횡단하기 시작한 15세기부터 중요시되었다. 경도는 당시 무척 불가사의한 것이었고, 백사람들에게는 수수께끼, 과학자들에게는 풀어야 할 문제, 왕과 정치가들에게는 골치 아픈 방해물이었으며, 젊음과 연금술의 원천에 필적하는 신비로운 느낌을 줄 정도였다. 따라서 정확한 경도를 알아내는 작업은 특정 국가의 이익과 경계를 초월하는 프로젝트로 아직 국제 체제가 확립되지 않은 시대에 이루어진 국가 간 협동의 초기 사례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 정밀한 시계의 발명으로 생긴 근대적인 시간 개념이 경도를 발견하게 해주는 중대한 역할을 했다. 왜냐하면 태양의 움직임과 정밀한 시계로 향해한 거리를 계산해 경도를 측정해냈기 때문이다. 이는 장차 인간이 시간을 표준화시켜가는 긴 과정 중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산업혁명기에 등장한 철도는 인간의 역사에서 장거리 여행과 통신에 가장 빠른 수단을 제공해주었다. 철도는 수많은 ‘지역시간대’를 거치기 때문에 ‘정오’와 같은 자연적인 기준과는 배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말하자면 시간의 관념이 지방의 지리적인 위치에 따라 달라진 것이다. 초기의 철도는 그것의 기점이 되는 도시를 기준으로 시간을 설정하고 각 역마다 두 개의 시계를 비치했는데, 하나는 철도시각을,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역시각을 가리켰다. 하지만 이런 관행은 철도노선이 점차 복잡해지면서 효율성이 떨어졌다. 예를 들어 한 노선이 여러 개의 대도시를 거치거나 여러 노선이 하나의 대도시를 거쳐 가는 경우에는 이런 방법이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결국 지역시각과 철도시각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철도여객들은 여러 시각을 동시에 인식해야만 했고, 그렇지 않을 경우 그들은 여행 중에 길을 헤맬 처지가 되고 말았다.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표준시간대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었다.

[바] The time-zone system has promoted *organic* solidarity.* Note that the tendency to apply a single standard of time throughout the entire country even when that country is exceptionally wide is to be found only in societies that emphasize *mechanical* solidarity and uniformity and strive toward political centralization. The Soviet Union, for example, is divided into no fewer than 11 time zones, yet all Soviet airports and railroad stations must observe Moscow time. Similarly, even though it is nearly 50 degrees of longitude**—that is, more than three solar hours—wide, almost the entire area of mainland China is placed within one and the same time zone. In marked contrast to such extreme manifestations*** of mechanical solidarity, it is particularly noteworthy that at no time has the United States, which evidently stresses decentralization, ever seriously considered the possibility of adopting a single standard of time throughout the entire country. Thus, the standard-time zone system—which essentially involves a plurality of standards of time—does more than just allow at least some approximation of clock time to actual solar time. Given that temporal coordination serves to solidify organic ties among people, this system also seems to be a perfect manifestation of the modern prevalence in the West of interdependence and complementary differentiation**** over mechanical ties of similitude***** and uniformity.

* solidarity 결속, 연대

** longitude 경도

*** manifestation 나타남, 발현

**** complementary differentiation 상호보완적 차별화

***** similitude 유사성

[사] 프루스트의 소설에서 과거와 현재, 꿈과 명상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손잡는 것이나, 항상 새로운 대상을 찾고 있는 감수성이 시간과 공간 속을 마음대로 방황하는 것, 또는 이러한 끝없고 가없는 상호연관의 흐름 속에서 공간과 시간의 경계선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모두 영화의 생명을 이루는 4차원적 세계에 해당하는 것이다. 프루스트는 한 번도 날짜나 연령을 명시하는 법이 없다. 우리는 주인공이 정확히 몇 살인지 알고 있는 적이 없고 사건의 연대기적 순서조차 끝내 모호할 정도다. 프루스트의 작품에서 경험과 사건들을 연결시켜주는 것은 시간적인 인접관계가 아니다. 더구나 이러한 경험이나 사건을 연대기적으로 정리하고 구분하려는 노력이 프루스트의 관점에서 더욱 무의미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의 견해에 의하면 사람은 누구나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그 사람 특유의 전형적 체험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소년이 청년이 되고 다시 성인이 되더라도 항상 근본적으로 동일한 체험을 한다. 어떤 사건의 의미는 그 사건을 겪고 견뎌낸 여러 해 후에야 비로소 머리에 떠오르기 일쑤다. 그리고 지난간 세월의 침전물을 현재 시간의 경험과 구별하기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일생 동안 내내 언제나 민감하고 불안한 신경을 가진 동일한 아이, 동일한 병자, 동일한 외로운 이방인이 아닌가? 인생의 어떠한 처지에서도 항상 이러한 것을 경험할 수 있고, 따라서 세월의 흐름에 대한 유일한 방어를 자기 체험의 고정된 정형성에서 찾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모든 체험들은 말하자면 한꺼번에 일어나고 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러한 동시성은 결국 시간의 부정이 아닌가? 그리고 이러한 부정은 물질세계의 시간과 공간이 우리에게서 앗아가는 저내면성을 되찾으려는 투쟁이 아니겠는가?

[아] 인간의 몸으로 환생한 신이 죽은 후 그의 영혼은 때때로 다른 사람의 몸으로 이동한다. 타타르족의 불교도들은 많은 수의 봇다들이 존재한다고 믿는데, 이 봇다들은 ‘위대한 라마’라는 이름으로 주요 사원들의 주지로서 살아간다. 신자들은 죽은 라마가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곧 환생할 것이라 믿기에 라마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다. 그들의 유일한 걱정은 죽은 라마가 다시 태어나는 장소를 어떻게 찾아내느냐이다. 만약 무지개를 본다면 신자들은 죽은 라마가 자신이 환생할 장소를 알려주기 위해서 보낸 계시로 여길 것이다. 때로는 신성한 어린아이가 “나는 어디어디 사원의 살아있는 봇다였던 위대한 라마다. 나를 옛 사원으로 데리고 가라. 나는 영원한 지도자이다”라며 스스로의 정체를 알리기도 한다. 봇다 스스로 밝히든 하늘의 계시가 알려주든 봇다가 태어난 장소가 밝혀지면, 기쁨에 찬 순례자들은 천막을 걷고 어린 신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때때로 왕이나 왕족을 따라서 출발한다. 대개의 경우 환생한 라마는 성지로 알려진 티베트에서 태어나고, 라마를 데려오기 위해서 순례자 무리는 끔찍한 사막을 종종 횡단해야만 한다. 마침내 라마를 찾아내면 그들은 무릎을 꿇고 경배한다. 하지만 이 아이가 위대한 라마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순례자들을 만족시켜야만 한다. 순례자들은 라마로서 되돌아갈 사원의 이름이 무엇이며, 그 사원이 얼마나 멀리 있고, 얼마나 많은 승려들이 그곳에 있는지, 또한 생전 위대한 라마였을 때의 습관과 죽은 경위가 무엇인지 아이에게 물어본다. 그런 다음 아이는 자신의 앞에 놓인 기도서, 주전자, 잔 등과 같은 다양한 물품 중에서 자신이 생전에 썼던 것을 골라내야만 한다. 만약 이 아이가 실수 없이 순례자들을 만족시킨다면, 자신이 라마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사원으로 향할 것이다. 이들 라마는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되기 때문에 죽으면 신성하고 불멸하는 그의 영혼이 다시 아기로 환생하게 될 것이다.

1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를 요약한 후, 각 제시문에 나타난 시간의식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20점]

2

제시문 [다]와 제시문 [라]에 나타난 현재와 미래의 관계를 설명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제시문 [다]의 입장에서 제시문 [라]를, 제시문 [라]의 입장에서 제시문 [다]를 비판하시오. [25점]

3

제시문 [마]와 제시문 [바]에 나타난 표준시간대의 등장 배경을 기술하고, 제시문 [바]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이유를 설명하시오. [25점]

4

제시문 [사]와 제시문 [아]에 나타난 시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제시문 [가]~[바]를 모두 활용하여 시간과 삶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논술하시오. [30점]